

■ 특집 ■

이주와 여성의 깨어나기

나혜심

I. 머리말

오늘날 이주 현상의 특징을 가장 잘 요약한 표현 중 하나로 “이주의 여성화”가 있다. 이는 특히 1980년대 이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주가 일상화 되는 상황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을 요약한다. 다음의 두 가지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주방식의 변화이다. 인류의 역사와 시간을 같이 하는,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향한 가족 단위의 이민과 달리, 2차 대전 이후에 가족은 본국에 남겨두고 단독으로 노동력 제공을 위하여 국경을 넘는 노동이주가 진행되었다. 초기에 주로 이주 주체는 남성이었다. 대개 가장이었던 이들이 이주노동자 고용국의 기업과 단기적인 노동계약을 맺고 이주를 했고 고국에 있는 가족은 이주자가 송금하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용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이주자들은 가족을 두고 혼자서 이주를 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초청이 가능해졌다. 초청된 가족 중에서 여성들은 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청소 등의 허드렛일에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고용되었으며 이런 종류의 노동력 역시 이주유입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활용되곤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이주의 주체 중 다수는 남성노동자였다. 업종에 따라서는 여성이 이주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대략 1980년대에 이

르면 이 상황은 변화해 여성들이 이주의 주체가 되는 이주시기가 되는데 이런 전환적인 현상을 이주의 여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여성이주자 수는 이주자 중 과반수를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주로 아시아의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¹⁾

그러나 이주의 여성화라는 표현을 만들게 하는 이주와 관련된 또 하나의 현상이 있다. 주로 관습적으로 ‘여성이 전담했던 종류의 일을 하는 직업군’에 이주노동이 증가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육아나 가사노동, 양로와 요양 분야 등의 서비스 일자리가 서구 복지자본주의 국가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대신 이런 육체적 서비스 업종에 대한 국내 구직자의 선호도가 줄어들면서 이런 분야에 일손이 부족해졌다. 그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 여성들이 채우면서 이주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이주의 여성화의 다른 부분이다. 고국에는 이주한 여성노동자를 제외한 가족이 남아있고 그들 사이에 송금이 이루어지는 점은 남성 중심의 이주에서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족의 초청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원거리에서 유지되는 가족의 삶은 지속되어진다.²⁾

외국인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리고 다른 인종출신으로서 이주자 일반이 겪는 경험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차별적이기 일쑤이고 거의 모든 경우에 그 차별은 다층적으로 오곤 한다. 이주한 여성의 인종적 특징과 그들이 여성이라는 특징, 그리고 대개 낮은 수준의 대우가 제공되는 일자리에 유입되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인종적, 젠더적, 계급적 차별의 양상은 중복되어 이 여성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이유에서 이주는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추상되며 실제로 이런 이주자들에 대한 연구 성과들 속에서 차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주노동이 주로 빈곤한 국가로부터 부유한 서구 국가로, 글로벌한 남부 사이에서 북쪽으로 인력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관계 안에는 역사적으로 제국과 식민, 서구우월과 그 상대

1) 스리랑카의 경우 2001년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원 중에 67.5%가 여성이며 2003년 필리핀 통계에 의하면 이 나라의 경우 73%가 여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선주, 「국제노동이주와 젠더: 배제와 제한된 포용」, 『한국여성학』, 22(4) (2006), 132쪽

2) 이에 대해서는 같은 논문, 130쪽.

영역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편견들이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경험은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기에다 여성이주자의 경우, 젠더적 차별은 그들이 여성노동자라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종사하는 업종이 ‘여성들의 전업적 영역으로 여겨지던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더 차별의 대상이 된다. 1980년대 이후 ‘이주의 여성화’ 현상 증가 속에서 세계의 연구자들의 시선은 이주하는 여성들에게 쏠리고 있고 전근대적인 사회계층인 ‘하인’으로 전락하는 이들의 실태가 많은 사회과학, 정치학, 인구학, 그리고 여성학과 연계된 주변학문분과에서 쏟아지고 있다.³⁾ 그들의 경험 이외에도 이주국에서의 그들이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⁴⁾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유입과 동시에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입과 함께 이들과 연관된 교육 문제, 가족관계 문제 등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주에서 여성의 문제는 이주와 관련된 논의에서 단연 월등한 중심 주제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학이나 사회학, 교육학, 그리고 정치학 등은 물론이고 여성학적 관심과 결합된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유입된 이주자 뿐 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배출한 이주자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한인 여성들만의 단독 이주로는 최초로 할 만한 20세기 초 미국으로의 사진 신부에서부터 유학생들, 그리고 역사적 관계 속에서 중국, 일본, 구소련, 미국 등지로 이주한 여성 뿐만 아니라 독일로 갔던 간호업종의 이주여성 들에 대한 연구까지 이주연구에서 여성의 문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제도 확대와 지구적 차원의 업종별 분업화 현상 속에서 특히 여성적 노동으로 규정되어온 돌봄 분야의 노동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주와 여성의 문제는 더 많은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3) 하인의 표현은 세계의 모든 하인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필리핀 여성이주동자들에 대한 실태를 서술한 파레나스 사센의 『세계화의 하인들』 (여이연, 2009)에서 상징적으로 가져왔다.

4) 이에 대해서는 Beverly M. Weber, “Beyond the culture Trap: Immigrant women in Germany, Planet-Talk, and a politics of Listening”, *Women in German Yearbook* 21 (2005).

이주와 관련해서 주로 이주자의 이주와 정착이 이주민 유입국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까지 중심을 차지했다면 역으로 이주여성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시점이다. 특히 이주의 여성화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주로 아시아권 여성이주자들이라는 점에서 이주의 증가 속에서 주로 발생하는 계급적, 인종적, 그리고 젠더적 차별의 현상이 이들 돌봄 노동 여성노동자들과 만났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매우 흥미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이주하는 여성이주현상은 그 여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주의 진척과 젠더적 문제의식의 연관성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 유입이 급증한 것은 1990년대 경부터이다. 그런데 바로 이시기는 세계적으로 이주노동 선택자들 중 여성이 숫자적으로 증가한 때이며 여성의 전업적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가사노동이나 연예, 그리고 성산업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그 중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두 영역은 근대 이후 여성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활용한 사업이라는 면에서 젠더적 차별과 억압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불리는 분야의 사회화가, 이 분야의 저임금 현상과 동시에 진행된 까닭에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센의 의견처럼 이 노동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이들은 주로, 제공되는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게 된 제3세계 여성들이다.⁵⁾ 게다가 한국사회의 경우, 물론 이것이 한국만의 경우가 아니었지만, 이주여성의 문제로 이슈화되고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이주문제는 곧 젠더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주문제에 대한 연구자가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 몰려있는 것은 이주사회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하게 될 새로운 문제의 해결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5) 사센의 의견에 대해서는 Saskia Sassen,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The New Press, 1998), pp.121-130; 이선주, 「국제노동이주와 젠더」, 131쪽 참조.

그런 이유에서 한국 내에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의 이주 현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지만 목적은 적응과 갈등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해결책을 찾는 연구 성과로 모아진다. 예를 들면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과정과 관련된 논의로서 여성들이 다층적 차별구조 속에 들어있다는 의견을 펼친 연구가 그것이다.⁶⁾ 한국사회에 적응을 넘어 통합하는 것을 당위로 하는 사회적 요구들이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한국사회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 뿐 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바라보는 그들에 대한 시각으로 나타난다고 연구성과들은 드러낸다. 예를 들어 미디어는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들이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질서 하에 있고 강도 높은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착한 며느리, 순정적 아내의 역할을 그리면서 그들의 모습을 정형화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물론 이런 문화적 요구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결혼이주과정에서 매매혼의 대상이 되고 결혼한 가정 내에서는 폭력에 노출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라는 점,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성적인 대상으로 상품화되어있다는 것도 드러난다.⁷⁾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 주류사회가 원하는 여성의 모습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사회의 규범과 생활방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미디어의 담론을 드러냄으로써 소수문화인이며 자신의 원거주지를 떠난 이주여성들의 처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이주사회의 요구만을 강요하는 사회, 그리고 그럼으로써 기댈 곳이 없는 결혼여성의 상황을 드러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새로운 가족이나 남편 등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만이 여성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이 여성들의 어려움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이 출발하는 구조적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⁸⁾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문제나 또는 출산과정을 거치며 육아나 아동 교육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내 인구학적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 관

6) 김영란,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1호 (2006), 147쪽. 이 글에서 이주여성들은 여성, 외국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자로서의 다층적 구조를 강조한다.

7) 김수정, 김은이,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가을 통권 43호(2008).

8) 양정혜, 「소수민족 이주여성의 재현: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7호(2007).

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⁹⁾ 문화의 상이함으로 인해 이주자들이 갖는 전형적인 어려움 속에서 특히 여성들이 갖는 고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지극히 사적인 관계인 결혼이라는 것이 국제결혼이라는 과정 속에서는 경제 질서와 결혼인구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의 필요, 그리고 젠더적인 정치학이 작용하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한다.¹⁰⁾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는 이미 국제적 차원에서의 연구방식으로는 물론, 주로 사회운동 단체와 연관한 한국사회의 행동에 대한 연구들도 봇물처럼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¹¹⁾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은 국내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넘어 지구화와 여성노동의 문제, 이주와 젠더의 문제 등에 대한 일반적 논의들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런 논의들 속에서 앤서니 기든스의 『기로에 선 자본주의』(2000)¹²⁾, 올리히 벡의 『위험사회』(2006)¹³⁾, 『장거리 사랑』(2012)¹⁴⁾ 등이 국내에 번역되어 광범위하게 읽히고 인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의 일상화 이후 많은 지역에 돌봄 노동자로 진출하는 아시

9) 예를 들면, 김영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젠더관점과 다문화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호 (2010)

10)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정치학」, 『경제와사회』, 통권 제70호 (2006).

11) 예를 들면,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화」; 설동훈, 「국제결혼이민과 국민·민족 정체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자아 정체성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3 (2014); 이해경,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2005) 등

12) 특히 “보살핌 사슬과 감정의 잉여가치”는 여성의 전적인 영역이었던 돌봄이 지구적 차원에서 사슬로 연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과 육아에 담긴 감정이 지구적 차원에서 확장되고 왜곡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13) 이 글에서는 근대적인 성별 분업이 실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점차 여성의 성역할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러 성별로 전업적으로 보이던 고유영역의 규정이 해체되면서 가정의 불만이 야기되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돌봄노동이 이주를 통해 해결되게 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14) 여기서는 가정 내의 애정이 이주노동, 특히 돌봄 노동이나 대리모 등의 방식을 통하여 지구적 차원으로 그 영역이 확산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특히 결혼여성들의 피해자성이라는 일반적 담론과는 달리 결혼이주가 초래하는 결혼의 본질과 배치되는 모습의 출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 여성, 특히 필리핀 여성들의 이주사를 통하여 이주여성의 수 많은 경험들을 분석한 파레냐스의 『세계화의 하인들』은 이제 이 분야의 고전에 속한다.¹⁵⁾

이주국 사회에서 이주자 여성이 어떻게 관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주와 여성 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베스트팔(Manuela Westphal)의 경우, 독일 사회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고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주로 터키 여성들의 그것에 기준을 두고, 그들이 희생자, 또는 색다른 여성(Exotic)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¹⁶⁾ 이런 관점을 통해서 이주여성들은 이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다중적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주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노동의 종류와 성격에 집중하는 연구들도 상당히 있는데 특히 여성의 이주자로서의 직업이 젠더적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 사실 이것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에 대한 집중이 개인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낸 것이 이주의 여성화 상황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 더 중요하다. 즉 필리핀이나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 등의 경우를 예로 들어 여성의 이주노동이 개인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이주의 여성성을 촉발시키는 정치적인 부분을 강조한 이예츠(Nicola Yeates)의 연구가 그러하다.¹⁷⁾ 여성들의 이주가 고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연구는 이주와 개발에 대한 전형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 국가적, 국제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동기와 여성의 이주를 연결하는 연구도 있다.

15) 살라자르 파레냐스 (Rjazel Salazar Parrennas), 『세계화의 하인들』 (이연, 2009).

16) Manuela Westphal, "Geschlechterstereotype und Migration", Deutsches Institute für Menschenrechte, *Zwangsverheiratung in Deutschland*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7), p. 128.

17) N. Yeats, "Production for Export: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Global Care Chain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5 (2009). 이 경우에서 한국의 경우, 간호여성들의 이주가 국가적 사업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1980년대 과독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담론을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역사적 사실과 상당히 어긋나는 면을 담고 있다. 이 부분의 수정은 순전히 한국 역사가들의 몫이다.

문화의 상이함이 특히 젠더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들을 타자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연구도 있다.¹⁸⁾ 이런 타자화의 경향이 그러나 나라마다의 차이에 의해서 문화적 적응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독일로 갔던 한인여성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도 하였다.¹⁹⁾ 그 중에서 두 문화, 특히 한인과 결혼한 남성들의 문화적 특성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특성이 만나 상호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이 연구에서는 다루어졌다.²⁰⁾

결혼이주여성 이외에도 한국에는 다양한 업종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가사노동, 저임금 제조업, 성매매 관련 업종이거나 또는 이와 연계된 산업 등이다. 근대세계 이래로 여성의 전형적이고 고유한 일이라고 여겨져 왔던 가사영역과 여성의 젠더적 고유성을 상품화하는 영역, 그리고 낮은 임금의 생산직에 주로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젠더, 계급, 인종의 교차점에 처해 있는 전반적인 이주여성노동자의 범주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아서 주로 사회과학적 영역에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들이 처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의 다양한 폭력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이들의 인권과 모성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이주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도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²¹⁾

이주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수용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고유함에도

18)Barbaras Stilwell u.a., “Migration of health-care workers form developing countries:strategic approaches to its management”,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ugust 2004).

19)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함. 이수안, 「이주여성의 타자성과 관용의 상호발현에 대한 이론적 모색:재독 한인여성의 이주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통권 제12집 (2008), 76쪽.

20)이수안의 연구에서는 독일 사회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통하여 성찰성과 관용성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인의 정착과정에서 적응하는데 이런 부분이 순기능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특히 독일인이 갖고 있는 합리성과 한국인의 순응적 합리성이 만나서 조화를 이룸으로써 다문화적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타자성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희석되고 다양한 문화권의 이주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담보 받는 토양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앞의논문, 98쪽.

21)김영란,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0) (2007) 참조.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로서, 또는 결혼 이주자로서 이주국에서 만나는 문화혼성성이나 또는 타자화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작용한다는 것은 좀 더 일반화된 여성이주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한다. 이미 제국주의 시절부터 진행되어왔던 지구적 차원의 성별분업현상이 지구화의 시대에 가속화되면서 국가가 불균형적인 경제발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국부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여성들로 하여금 성별로 특화된 직업과 가치 절하된 노동을 선택하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상황의 지속 속에서 진행되는 이주의 증가 현상 속에서 여성들의 타자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²²⁾ 이런 생각은 여성이주를 생산하는 지구화과정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타자화나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가속화 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고 파악하는 다양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이주자 집단이 이주국 사회에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주국의 다수 사회에서 타자화 되는 것은 사실 일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국제이주자 증가의 주된 원인이 지구적 차원에서의 빈곤 심화, 그리고 그 이외 다양한 요인들, 젠더, 계급, 인종관계들에 의해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사실 이미 국민국가의 성립은 이들의 불리한 입장을 배태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국민국가 내의 소속인들에게 다양한 법적 지위가 강화 될수록 그 영역에 유입된 비소속인의 위치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민권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 권한이 강화되면서 국가 소속원들이 다양한 시민권을 통해 정치,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면서 이주국에 소속되지 않는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²³⁾

게다가 시민권적, 그러니까 정치적 권역의 구분과 더불어 이주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급적 인종적 차이가 더해지고 더 나아가 젠더적 차별이 더해지면서 여성이주노동자의 트랜스내셔널한 삶의 방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위에서 언급했던 수 많은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22) 이에 대해서는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국제성별 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2004) 참조.

23) 시민권의 배제와 차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선주, 「국제노동이주와 젠더」, 『한국여성학』, 22(4) (2006), 129쪽 참조.

측면들이 나타난다.

이주여성들이 갖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한 측면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파편적으로나마 강조하는 연구성과들도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이 국제 결혼을 시도하는 것은 신분 상승 등의 욕구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²⁴⁾, 이주노동을 스스로 선택한 여성들의 동기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선택 결정과정에서 그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중요시하는 시각이 그것인데, 그 결정과정을 해방의 의지로 연결하는 연구 등이 있다. 특히 여성들이 이주를 선택한 이유가 그의 아버지나 또는 남편에 대한 반항의 차원인 경우가 많았던 점도 강조된다.²⁵⁾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보이듯이 이 과정은 일반적 이주노동자의 경험에서 보이는 계급적, 인종적 차별 현상에 더하여 젠더적 차별이라는 내용이 더해지면서 그 길에 나선 여성들의 고통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이상의 많은 연구들이나 더구나 여성이주자들의 이주행위에 담긴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에서 간과하는 것은 이주는 단순히 국경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 2차 대전 이후의 이주노동은 더구나 혼자서 국경을 넘는 것이기에 이들이 이주국에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문화적 낯섬과 차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얻게되는 적응 또는 그 이외의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사회와의 만남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모든 것을 ‘이주’는 포함한다.²⁶⁾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이주는 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었는지 하는 것은 이주가 초래한 이주국의 사회현상이나 또는 그 여성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런 부분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본고는 이주노동자로서의 한인간호이주노동자들에게 독일 이주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4) 김영란,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150쪽 참조.

25) Manuela Westphal, “Geschlechterstereotype und Migration”, p. 133.

26) 이주가 갖는 장기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나혜심, 「국경을 가로지르는 과정으로서의 이주」, 『사람』, 제 47호 (2014) 참조.

III. 이주와 이주여성의 깨어나기

캐나다의 유명 여성지 중 하나인 *Chatelaine*에 나타난 기사들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들이 잡지에서 읽기를 원하는 기사가 무엇인가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때 여성들이 이 잡지의 내용으로 기대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유리천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였다고 한다. 하지만 약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 기대하는 바는 달라졌다고 한다. 직장 내에서 평등한 진급을 위해 일을 하는 것과 아이돌보기 및 소위 가정에서 여성이 할 일들이라고 여겨지는 일들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여성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성이 하도록 인식되어 있는 가사 일일 것이다.²⁷⁾ 약 10년간의 사이에서 변화한 것은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염려가 더 이상 고려할만한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직장에서의 젠더간 평등을 취하는 일, 그리고 동시에 직장을 나가느라 비운 집안의 일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고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가 2006년인 점을 생각하면 약 1996년 경의 상황과 그 뒤 10년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민 유입국의 고용여성들은 이주노동자를 통하여 자신이 ‘원래 하게 되어있었던’ 일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성별분업에 의한 노동의무를 해결하게 한 셈이다.

이런 양상은 유럽의 경우에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 일부 여성학자들을 중심으로 독일 사회에 공공연하게 비밀스런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학자는 헬마 루츠(Helma Lutz)인데, 그는 19세기 하녀노동자가 계급적 기원을 갖는 19세기 하녀노동자와는 달리 민족과 인종적 기원을 갖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문제가 지구화시대의 중요한 사회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⁸⁾ 가사노동 뿐만 아니라 많은 돌봄 분야의 노동력은 독일

27)잡지에디터의 기술에 대해서는 Allison Weir, “The Global Universal Caregiver: Imaging Women’s Liberation in the New Millennium”, *Constellations* Volume 12, No.3 (2005), p. 308 참조.

28)Helma Lutz, “Gender, Ethnizitaet, Identitaet: Die neue Dienstmaedchenfrage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Diskurs Kindheits- und Jugendforschung* (2006), pp. 301-306.

에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돌봄분야 노동력의 이주는 지구적 차원의 이주노동으로 채워질 전망이다.²⁹⁾

하지만 이보다 이른 시기에 독일 사회는 독일 여성이 빠져나간 자리에 긴급하게 외국인 여성노동력을 채워 넣는 일이 발생했었다. 바로 사회 내에 돌봄 노동, 즉 병원이나 양로원, 요양원 등의 간호노동이었다. 앞서 캐나다의 여성들에 비하여 이 시기 독일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의 유리천정을 무너뜨리는 문제와 같이 직장 내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능력을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을 고민하던 시기가 아니었다. 그 직장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에 고민하던 시기였던 것이다. 바로 1950년대 이후 독일 전후 사회체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쟁기 동안 남성을 대신하여 일터에 나가 있던 여성들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 가정의 안온함을 지키게 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요양과 간호, 양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전업적인 일이라는 편견과 대우의 문제로 젊은이들의 직업선택 선호도에서 밀려 있던 시기였다.³⁰⁾

이 시기에 한국, 홍콩, 인도, 필리핀 등지에서 독일로 간호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이들은 오늘날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하는 돌봄노동자들과는 다른 이들이었고 자신의 국가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었으나 독일에서 또 다른 의미의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이었다. 비록 오늘날 돌봄노동력의 사회적 위상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경제력과 인종, 민족, 그리고 젠더적 차원에서의 차별적 지위를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입지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전형적인 그것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이주가 차지하는 의미에 대한 물음의 한 조각을 이들에게서 얻으려고 한다.

29)Eva Senghaas-Knobloch에 의하면 1995-2000년 사이에 돌봄 분야 노동자의 자리가 50,000개 정도 없어졌으며 이에 반하여 돌봄을 받아야할 환자는 백만 명 정도가 더 증가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Eva Senghaas-Knobloch, "Care-Arbeit und das Ethos fuersorglicher Praxis", *Berliner Journal fuer Soziologie* (2008), p. 229.

30)이에 대해서는 나혜심, 「과독 한인여성 이주노동자의 역사」, 『서양사론』, 제100호 (2009), 266쪽 이하 참조.

1. 이주, 하나의 기회?

이주민들, 특히 여성이주자들이 이주국에서 경험하는 계급적, 인종적 그리고 젠더적 차별과 폭력 상황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이주가 여성에게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³¹⁾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이주여성들이 가난이나 생존을 위한 이유에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으로”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도 강조된다. 흔히 이주자의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으로 회귀되는 것과는 다른 이해인 것이다. 경제적 동기에 대한 것은 물론 이주자들의 이주 동기에서 기본적으로 거론되는 요인이다. 독일로 갔던 간호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떠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주 보여지는 동기는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학교를 마친 후 서울의 병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 다른 직업에 비교하여 임금이 그리 낮지는 않아서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남자형제들의 학비를 내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1949년생 면허 간호사로 1973년 독일로 감)

“빛에 허덕이는 우리 가족과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어린 남자동생들을 돕고 싶었다”.(1946년생으로 간호조무사로 1971년 독일로 감)

“나의 어머니는 홀로 나의 대학학비를 냈다. 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나의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3형제를 위하여 희생하시는지를 느끼게 되었다... (중략)...학교를 마친 다음에 나는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돕고 싶었다”³²⁾

그러나 당시 독일이 한국과 비교하여 경제적 수준이 높았던 것이나 한국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사회적 분화가 되고 있던 시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개인적인 빈곤의 여부와 관계 없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한다는 목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런 경제적 개선에 대한 욕구는 일종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아 더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인적인 삶을 교육이나 문화적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31) 예를 들면 김영란,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49쪽 참조.

32) 위의 세 개의 인용을 포함하여 Yoo Do-Jin, *Die Situation koreanischer Krankenpflegekräf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hre sozialpädagogischen Probleme* (Kiel diss., 1975), pp. 162-163 인용.

이 이들에게 더 전반적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는 교육에 대한 기대였다.

“ 내 계획은 우선 3년간 독일에서 돈을 벌어 집에 보내서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 검정고시라도 준비해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 다음에 어떻게든 야간대학이라도 다닐 생각이었다”³³⁾

“...그니까는 소매잡화상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봐서는 그리 가난한 편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풍부한 편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먹고 살 정도는 되었었거든요...(중략)... 한국에서 남존 여비사상이랄까. 너는 대학포기하고 그냥 직장, 다른 직업 같은 것을 배워라 배워라 자꾸 하시더라고...그래서 어떻게 길이 있었으면, 대학을 갈 수가 있으면 좋았는데 또 말을 너무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이 쪽으로 독일로 공부도 할 겸 해서 나와버린 거예요”³⁴⁾

교육의 기회는 당시 여성들에게는 남자 가족과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차선적인 수혜대상자였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욕구는 당시 한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많은 이주동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당연히 경제적 여건의 여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이루고 나면 다음에 원하는 것은 자신의 교육의 기회였고 이는 결국 자신의 삶의 개선을 위한 동기로 귀착되는 동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더 많은 이들을 국경 너머의 삶으로 인도한 것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여성에게 강요하는 어떤 고집스러운 편견에 대한 저항이었다.

“ 내게는 돈을 벌기위한 신세계라기보다는 자유를 얻기 위한 신세계로 느껴졌다.” “유럽으로 여행을 다닌 이야기가 나를 사로잡았다”³⁵⁾

33)이영숙, 『누구나 가슴 속에 꿈이 있다』 (북스코프, 2009), 26쪽에서 인용.

34)1970년에 간호학교 학생 자격으로 독일로 갔고 간호학교 졸업 후 간호사로 근무한 여성.“파독한인여성간호노동자들의 증언자료 2”, 2008년도 구술자료 수집사업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35)송금희 & 조국남, 이에 대해서는 김용출, 『독일아리랑』 (에세이, 2006), 116쪽 참조.

이런 경향은 비단 한국여성이주자들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유럽으로 이주한 주변국 여성들의 이주의 원인에는 그의 아버지나 또는 남편에 대한 반항의 차원인 경우가 많았다는 조사결과들이 있다.³⁶⁾ 1970년, 독일의 자동차부품 공장이었던 피어부르크(Pierburg) 자동차회사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 그 과정에서 이 투쟁에 참여했던 그리스 여성 안나 사톨리아스(Anna Satolias)의 표현에 의하면 그 시기 지중해 지역 주변 국가 여성들에게 이주를 한다는 것은 해방을 찾기(to find emancipation)를 의미하였다고 한다.³⁷⁾ 또한 이주행위가 자신의 국가에서는 누리거나 꿈꾸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계층이동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³⁸⁾

이주가 경제적 기회 이외에 해방이나 관습적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향한 여정이었던 것은 단순히 이주여성노동자가 쥐게 될 금전적인 부분이 그것을 담보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1950년대 이후 이주가 주로 이루어졌던 공간에 대한 관찰을 결합했을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2차 대전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전후 복구과정과 사회변화 속에서 필요로 했던 이주노동자들이 유출되었던 곳은 식민지에서 막 벗어났거나 반식민지적 상태의 국가들이었다. 이른바 서구 국가가 오리엔탈리즘으로 자신의 구분하는 타자의 영역이었고 그 국가들의 대부분은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고 서구식 자본주의 길을 나서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서구식의 자본주의, 정치적 근대화, 문화적 서구화는 하나의 숙제였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시기에 서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통로는 공적 또는 사적인 개발원조 과정을 통하여 이주민 유출국들에 전달되는 서구에 대한 환상적 이미지가였다. 사실 이런 이미지는 이미 아시아 지역의 경우 19세기 말의 개항과 제국주의적 진출에 의해 이미 형성되어 있던 바였다.

36) 예를 들면 Manuela Westphal, "Geschlechterstereotype und Migration", p. 133 참조

37) Jennifer Miller, "Her Fight is Your fight: 'Guest Worker' Labor Activism in the Early 1970s West Germany",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No. 84 (Fall 2013), p. 239

38) 이금순,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1호 (2006), 194쪽 참조.

그것은 일정하게는 근대 서구가 근대성을 기준으로 세계를 이분화하고 서구중심주의적이고 자기 우월적인 세계작동의 방식을 다양한 인식과 역사사술, 문화비교 등의 내용으로 상대화하고 비교해 왔으며 제국주의적 확장 속에서 그 상대화된 비교의 틀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교육되고 이식되는 과정에서 학습되고 인지되어 왔다. 공교롭게도 이주는 그 거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 이분법적인 세계 속에서 이주가 주로 이루어졌던 비서구세계, 또는 제 3세계의 사람들에게 이주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이었다.

1903년 최초의 한인이주자들이 하와이에 발을 들인 이후에 1905년까지 약 7800명이 하와이로 이주를 하였고 이 때 남녀 성비가 6대 1이었던 상황은 곧 ‘사진신부’라는 독특한 이주현상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 약 100명 정도의 여성이 미국으로 이런 방식의 이주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는 일제 강점의 상황 등 정치적 요인 이외에 이주자들의 경제적 개선이라는 목적 등 다양한 동인들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 개인들 중에서 발견되는 동기는 대부분, 자신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개선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13년과 1914년에 샌프란시스코 앞의 한 섬으로 사진신부로 간 여성들은 모두 일제 치하에서는 불가능한 더 많은 공부의 기회를 위하여 미국으로의 실재로는 매우 많은 위험요소를 가진 결혼을 선택했다.³⁹⁾

미국 선교사들의 유입과 그들이 알려준, 잘사는 나라 미국에 대한 환상이 당시 사회에 확산되어 있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적으로 꿈에서조차 그려지지 않은 낯선 땅으로의 이주를 택한 것은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당시 한국 여성들의 수동적인 모습과는 달리 여성들에게 자기 삶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욕구가 얼마나 강력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적극적 개선의 목표는 그들이 은연중에 학습 받아온 서구 세계에 대한 이상향적 그림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은 독일에 이주노동을 갔다가 다시 미국 등 제 3국으로 재이주한 이주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사실 처음부터 미국으로의 이주를 원했

39) 정은귀, 「천사도와 사진신부-초기 재미 한인 이민 문학의 재구성」, 『외국문학연구』, 55 (2014), 228-229쪽.

었지만 차선책으로 독일을 택했었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앞에서 보았던 사진신부의 경우를 비롯하여 항일 운동 시기의 지식인의 미국에서의 유학과 활동,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의 무상원조 과정 등을 거치면서 미국은 잘사는 곳, 꿈을 실현시켜줄 이상향으로 비추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 저는 사실은 필라델피아로 옛날에 가려고 했었는데 모든 여건이 충족치 않아서 아 그걸 그만두고 있다가 이렇게 독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중략)... 독일로 가 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3년 계약을 마치고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왔습니다.”⁴⁰⁾

이 구술자도 경제적으로 한국이 너무 못살아서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어렸을 때부터 꿈꾸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결국 가난한 나라와 대비되는 외국, 특히 미국의 이미지는 한국에 대한 한국전쟁 후의 지원은 물론 그 이전부터 한국과의 교류관계에서 한국인들에게 만들어진 것이었고 이런 이미지는 삶의 개선을 위한 여성들의 시도에 선호하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다른 이름, 독일의 경우도 많은 경우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편지는 나를 황홀의 경지로 몰았다. 이 친구가 사는 집에는 수영장이 있어 근무가 끝나면 언제나 수영을 할 수가 있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스테레오 전축도 2개월 일한 월급으로 구입할 수가 있고...(중략)..나는 당장 파독간호사 모집에 응했다. 그리고 70년 10월 커다란 희망을 안고 마치 천국으로 가는 양 들뜬 기분으로 가족과 헤어지는 슬픔도 별 관심조차 갖지 않은 채 비행기에 올랐다”⁴¹⁾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양분은 흔히 냉전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양분

40) 뉴욕에서 열린 파독 뉴욕 동우회 정기 총회에서 진행한 재미 한인과의 면담 자료. 4명의 간호여성들을 면담하였고 그 중 구술자 1의 내용. 광부간호사를 통해 본 파독의 역사적 의미와 영향 연구용역 자료집, 2013.12.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130쪽.

41) “내가 왜 식사 준비나 하느냐” 파독간호사의 논문(39), 『시민의 신문』 (2002. 11. 11.).

을 이야기 하지만 이와 함께 냉전의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이분화가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주민 유입국과 유출국이었다. 물론 이 시기 서구세계들의 경제적 발전 상황과 이제 막 식민지에서 벗어나거나 근대화의 길을 나선 비 서구지역 간의 경제적 차이는 명백한 것이었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서구세계의 문화적, 학문적 선진성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는 이들의 이주에 개인적인 동기로,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만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이미지는 18세기 이래로 서구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입되었던 것이다.⁴²⁾

물론 이주를 결심하게 한 다양한 동기들이 독일에서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찌면 그들이 살고 있던 당시의 한국은 그곳으로부터 해방을 꿈꾸게 하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탈영토화 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해방의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⁴³⁾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었는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 이주여성이 겪게 되는 인종적, 계급적, 그리고 젠더적 차별 상황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너무나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것은 비단 차별과 배제의 역사만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주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이주자 삶 속에서의 자각

1960-1970년대 한국의 독일여성 이주노동자들에게 여성 이주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나 젠더적인 차별철폐에 대한 인식을 기대하거나 또는 이주노동자로서 독일에서 누릴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자유 등의 문제에 대한 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들이 외국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이주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노동법이나 외국인으로서의 정치, 사회적 권리 등에 대한 정보는 주어진 바 거의 없었다. 경제적 상황은 물론이고 급속한 경제적 근대화 속에서 사회

42) 이주동기로 작용한 독일에 대한 문화적 동경에 대해서는 나혜심 『독일로 간 간호여성』 (산과글, 2012), 209쪽 참조.

43) 탈영토화가 해방의 기회라는 표현은 배옥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물화된 몸」, 『한어문교육』, 28 (2013), 324쪽에서 인용

적 분화와 정치적 권리 찾기의 혼돈 속에 있던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권리라는 것에 대한 담론이 매우 부족하던 당시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그리 특이한 일도 아니었다. 게다가 이주노동을 떠나는 사람들이 접하게 될 사회에서의 다양한 제도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이런 모습은 당시 독일로 갔던 광부의 다음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독일로 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사전교육에서 반공과 해외생활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은 철저히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일반시민의 권리, 한국과 다른 장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혜택,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습다.”⁴⁴⁾

1970년 경까지의 매우 개별적이고 모호하게 만들어진 노동계약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 한국 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사이에 협정을 맺고 이른바 이주노동의 경로를 단선화 했을 때조차도 이들 한인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정확히 인지했다고 생각되는 모습은 실제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들이 자신의 처지의 부당함을 언급하는 때에는 한국에서의 교육받은 것과 다른 간호생활에 대한 것이나 독일 동료들과의 일의 차이 등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⁴⁵⁾

독일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그러나 일반 독일 노동자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았고 특히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명백하게 차별적이었다. 1973년 독일 언론에서는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사태를 보도하였다. 독일 뒤셀도르프 인근 피어부르크 자동차 공장은 독일 내 많은 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제공하는 공장였고 이 공장에서 이 여성들은 독일 임금체계의 여성외국인 노동자에게 향하는 부당성에 대항한 파업을 하였다. 임금체계는 1-4까지 달랐고 체계 1의 경우는 “light”라고 하여 주로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에게, 그리고

44)조기상, 「파독 광부의 이주노동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독일의 이주정책과 한국인의 독일지주사례관련 포럼, 2007년 11월 6일 발표문, 8쪽 참조.

45)노인 환자의 몸을 씻어주며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이나 청소 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것들에 대한 인터뷰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일화이다.

상위로 갈수록 남성이나 독일 노동자들에게 향하게 짜여 있었다. 원래 임금체계 1은 처음 들어온 노동자들에게 향해진 것이었으나 외국인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 5~6년이 넘도록 이 체계 하에 있었다. 또한 많은 공장의 임금은 성과급으로 계산되었지만 그것의 기준이 모호함은 물론 평가체계 역시 정확하지 않았다.⁴⁶⁾ 즉 독일 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적 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금체계는 평등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여성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조건들은 더 열악한 것이었고 이런 이유에서 다른 독일 여성들의 경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적극성으로 앞서의 공장과업이 진행되어 여성들의 노동쟁의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이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의 불공평은 사실 독일에서의 외국인 고용정책 자체가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젠더정치적인 고려였다는 마테스의 말을 빌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⁴⁷⁾ 젠더의 문제는 비단 남성이 여성에 대해 차별하고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을 어떻게 위치시키는가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에 대한 대우는 당시 독일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들어있는 젠더적 차별의식의 발로이며 이런 과정에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노로 폭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장과 같이 대규모로 노동자들이 고용되었던 곳에서와는 달리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의 인원이, 각기 다양한 종류의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한국 여성들의 경우 그것을 의식할 기회가 없었다.⁴⁸⁾ 그런 가운데에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며 애초에 그들이 독일로 이주노동 가는 선택을 하는데 동기가 되었던 것들이 현실에서

46) Jennifer Miller, "Her Fight is Your fight: 'Guest Worker' Labor Activism in the Early 1970s West Germany", pp. 230-231.

47) Monika Mattes, *Gastarbeiterinnen in der Bundesrepublik* (Frankfurt a. M.: Campus, 2005), p. 11.

48) 고용된 규모가 노동쟁의를 일으키기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나혜심, 「독일의 손님노동자, 그들의 문제와 해결방식」, 『서양사학연구』 제38집 (2016), 25쪽 참조.

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임을 깨닫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국가에서의 체류경험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우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 성별 역할 분리에 대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고정관념의 변화 등이 그것들이다.

“결혼 초기에 우리부부는 정치문제에서 의견충돌이 잦았다. 한국에서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아온 나는 공산주의란 말만 들어도 반감을 느꼈고 남편이 군사독재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중략)... 남편은 이런 나에게 정치의식을 불어넣어주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었다.”⁴⁹⁾

이런 고정관념에 대한 자극은 결국 그들이 한국사회에 방문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였다. 예를 들면 한 한국인 간호사는 약 10년의 독일 체류 후에 고향을 방문했을 때, 국가사랑을 촉구하는 표어 옆에 붙여있던 “쳐 죽이자 김일성을”이라는 구호와 함께 다양한 반공표어 일색의 고향마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⁵⁰⁾ 심지어 실제로 그의 방문은 당시 시골 경찰의 의심을 샀고 그 의심은 경찰이 그의 고향집을 방문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옆집에 오신 손님 다시 한 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표어에 대해서는 독일로 가기 이전에는 아마도 아무런 의식적 자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잠시의 방문 속에서 이 표어는 이 여성의 눈에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직성, 더 구체적으로는 반공주의적 분위기를 드러내게 하였고 결국 이 문제가 갖는 의미에 대한 자각이 이 여성에게 찾아왔던 것이다. 특히 독일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 반공이데올로기나 군사독재에 대한 시각이 더 급속하게 변화해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바깥에서 접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목격은 여성들이 한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데에 중요한 자극이 되었다.

49) “한국인 며느리와 독일인 시부모” 과독간호사의 눈물(8), 『시민의신문』 (2002. 3. 18).

50) 재독한인여성모임 자료집, 베를린, 2003(미간행), 94쪽 참조

“1980년 5월 내게 어느 저녁에 뉴스를 통해 남한으로부터 아주 끔찍한 보도나 전해졌다. 내 고향나라 광주에서 봉기가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화면을 통하여 보도되는 믿을 수 없는 그림들은 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중략)... 나의 정치의식, 그것은 아주 엄격하게 공자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한국여자로서 반공주의적으로 교육을 받았었던 것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진행된 데모 대열에 대한 피땀 폭력적 탄압을 통해서 바로 깨어나기 시작하였다”⁵¹⁾

“너무 끔찍했다, 보고 또 봐도 이들은 한국사람들이었다... 우선 몇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의견을 들었고 모두가 하나같이 울분을 터뜨렸다. 빠른 시간 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인가를 하자’는 것이었다...(중략)...11월 9일에는 ‘김대중을 구출하자’는 구호 아래 시위를 했고...(중략)...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와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⁵²⁾

한국이주노동자들의 의식 각을 깨우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주요한 계기 중 하나는 독일에서 진행된 68운동과 그 결과가 구현된 사회적 실천들이었다. 68운동은 독일이 겪는 ‘근대성에 대한 재검토의 경험’이었다. 따라서 아직 전근대적인 세계에서 유입된 아시아인들에게 근대에 대해 저항하는 현상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사회와 교육환경에서의 진보적인 분위기,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유와 이를 위한 여성운동의 재흥은 당시 한인여성들에게 많은 자극이 되었다.

다른 도시에서 베를린으로 이사 갔던 한 한인 여성은 68운동 이후에 베를린이 갖고 있던 좀 더 강력한 변화의 분위기를 경험하였다.

“낮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간호사로, 저녁에는 학생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좌익성향의 진보적 교사들과 학교 분위기, 수업방식에서 나는 3년

51) Kim-Morris Soon Im, “Fern der Heimat, doch für immer verbunden”, Koreanische Frauengruppe in Deutschland, Heike Berner, Sun-Ju Choi (hg.), *Zuhause* (Berlin: Assiziation A2006), pp. 41-42.

52) 김정숙, 「광주가 내게 남긴 정치의식」, 파독 간호사의 눈물(42), 『시민의 신문』 (2002. 12. 2.).

이주와 여성의 깨어나기

내내 자유로운 베를린 콜텍의 공기를 마셔가며 점차 자의식을 키우고 사회생활을 익혔다...(중략)... 1975년을 전후로 곳곳에서 물결치던 ‘여성해방운동’은 여러 학과의 주제로 선택되어 우리는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이나 자나깨나 ‘여성운동의 이론과 현실, 3세계 여성운동’을 토론하며 흥분했고...”⁵³⁾

위에 대해 언급했던 여성은 이후에 여성의 지위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물론 다양한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가능한 행동을 진행하는 여성모임의 일원으로써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다.

근대를 넘어 근대를 점검하는 68의 가치는 여성들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더 강렬하게는 독일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서 더 강하게 다가왔다.

“ 어느 날 책을 빌리기 위해 그이 집을 들렀을 때, 그의 방 벽의 반을 차지하는 큰 모택동 사진을 보고 나는 놀랐다...(중략)... 뒷날 ‘68학생운동’ 때 이곳 사람들에게 모택동은 중국혁명을 한 영웅으로 상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모택동은 인간 역사에 남은 영웅이라 생각한다.”⁵⁴⁾

이 여성 역시 사회와 정치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재독한인여성모임의 일원이다. 앞에서 남편으로 인해 반공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그 여성은 1990년 당시 새로 출범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 본부에 가입하고 한국의 통일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1992년에는 평양에서 위안부 여성들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 이후 독일의 후원단체의 도움으로 위안부 관련 국제회의 개최와 위안부의 증언 독일어 번역 등 활발하게 사회, 정치적 이슈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애초에 이주노동에 나서도록 했던 동기에는 그들이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한국사회에 확산되어 있던 선진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지

53) 조국남, 「결국 ‘뿌리가 끊어진 병’ 걸리고」, 파독간호사의 눈물(30), 『시민의신문』 (2002. 9. 2.).

54) 안차조, 「된장찌개 좋아하는 그와 20년」, 파독간호사의 눈물(15), 『시민의신문』 (2002. 5. 6.).

만 이주 후 그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의식의 자각을 이루어갔고 이런 변화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관철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데로 발전하였다.

3. 여성의 조직화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

이주와 젠더의 문제에서 이주의 성격 자체가 갖는 젠더 차별적 부분으로 인하여 매우 부정적인 조합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그것은 동시에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기회로 작용하였다. 제 3 세계로부터 제 1 세계의 노동시장으로 유입된 여성들이 애초에 원했던 삶의 개선이라는 계획은, 그것이 경제적이든, 자유를 향한 것이든, 가부장적 문화로부터의 해방이든, 처음에 기대했던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경험한 시간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달성되어 갔다. 그것은 이주라는, 국경을 넘는 그 한 순간에 달성된 것이 아니라 이주자로서의 혼돈의 시간과 적응의 시간을 거치면서였다.

기본적으로 한인 간호여성들의 조직화가 쉬운 일을 아니었다. 학력별, 출신지역별, 이주할 때의 직업의 종류별로 그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고용의 규모 역시 일부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소수단위였다. 소규모의 불만 표출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⁵⁵⁾

이런 상황과 비교하면 1977-1978년 진행된 한인여성들의 체류권 투쟁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그들의 시작은 매우 단순하였다. 뮌헨지역에 사는 여성노동자들의 해고와 강제적인 귀국 증용으로 시작되었고 여성들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 문제를 논의할 모임이 만들어져 갔고 이 과정에서 교회 등 조직적 토대가 있는 기구의 도움은 필연적이었다. 이는 교회가 모임에 대한 어떤 의식적 토대가

55) 불만 표출의 예에 대해서는 나혜심, 『독일로 간 한인간호여성』, 184쪽 이후 참조.

되어서이기보다는 한인 사회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의식의 결집가능성,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체류권 투쟁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여성들의, 이주 노동자로서의 자기 이해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은 1974년에 베를린에서 발족된 “스스로를 돕는 한국여성 모임”이다. 이 모임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3년간의 취업을 전제로 한 노동계약조건문제”, “체류와 노동이 함께 묶여 있는 외국인 법”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신체조건으로 인하여 양로원에서의 업무를 병원 근무로 바꾸려고 할 때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었다. 또한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소외감과 어려움을 공동으로 극복하는 목적도 있었다.⁵⁶⁾

독일에서 한인여성이주자들의 조직화는 비단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이주한 이들이 이주한 초보자들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만든 지역적 모임들이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에 있던 대한간호협회의 독일 지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한국에서 면허 간호사로서 갖고 있던 위상을 독일에서도 연장하려는 이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면허간호사들로 이주한 이들이었다. 이런 지역에서의 요구에 의해 출발한 간호사들의 모임은 전국적인 모임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바로 재독한인간호협회였다. 물론 한국의 면허간호사들의 모임과 동일한 인정을 이 모임은 받지 못하였다. 간호사의 위상이 다름뿐더러 모임에는 간호보조원이나 또는 간호학생으로 갔다가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면허를 딴 간호사들도 섞여 있어서였다. 이 모임은 그러나 한인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동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일종의 친목모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에 비하여 재독한인여성모임의 경우는 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77-1978년 “여성의 체류권 투쟁 과정”을 함께 하면서 이들은 조직을 정비하고 이후 오늘날까지 다양한 노동, 사회, 정치 문제 등에 대해

56) 「재독한인여성모임 25년의 역사」, 재독한인여성모임 25년 자료집, 5쪽 참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74년에 재독한인 여성모임의 전신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여러 지역을 돌며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의식의 공유를 확인하던 이들은 1978년, 바이에른에서 한국인 간호사 추방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였고 한인은 물론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이슈화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각 연방정부에서 한국간호인력에 대한 무기한 체류 및 노동허가를 얻어내기에 이르렀고 이를 계기로 하여 1978년 재독한인여성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이후 재독한인여성운동은 재독한인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그 내용은 노동자로서의 권리, 독일문화와 외국인 체류권과 관련된 문제, 한국의 정치와 경제 역사 등에 대한 것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1978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1979년 YH사건, 독일 아틀러 그룹의 한국 의류 회사였던 후레아 패션 노동자들과의 연대(1986-88) 등 많은 노동자 운동과의 연대 행동들을 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 내의 정치,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관심 속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운동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비단 체류권 투쟁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는 아니며 독일인들과의 교류, 독일인과의 결혼, 또는 직장에서의 많은 사회적 관계들을 통하여 여성들의 의식은 사회화되고 각성되었다. 이것이 비록 젠더적인 평등의 문제에만 집결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이들의 이주라는 행위와 이주 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이들의 여성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다른 인종과 문화소유자로서, 이주자로서의 자각은 하나의 조직화와 사회, 정치문제에 대한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이주의 여성화 현상 이래로 이주는 젠더차별이 이루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발현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래의 복지자본주의와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업의 증가,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노동분업 현상은 서비스업 종사자 이주를 추동하고 대개 제 3 세계 여성들의 국경 너머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그 일 자체가 여성의 전업적인 것에 저평가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진다. 기본적으로 이주자가 계급 아래의 계급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는 또 여성을 계급 바깥의 계급으로 자리하게 한다. 이 상황에서도 지구적 차원의 빈부의 격차는 이 노동시장으로의 여성들을 끌어들였고 19세기 이래로 서구적 가치의 제 3세계로의 유입과정에서 형성된 서구중심적, 서구우월적 가치들은 이 과정을 더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주와 젠더의 일반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마주하는 두 국가의 발전 상황, 민주주의와 제도의 제도적 정착, 68운동과 같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큰 운동, 이주유출국과의 외교적, 국제적 관계, 양 국가의 발전 정도차이 등은 삶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가진 여성들에게 변화와 자각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것은 이주를 결심하던 동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작용한다. 바로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을 논의하고 공유하며 이주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들이다. 이 활동들이 즉각적으로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자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회의 일정하고 필수적인 노동을 제공하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드러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성균관대학교, hsn6642@naver.com

주제어(Key Words):

노동이주, 여성의 전적인 역할 영역, 긍정적 경험,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 젠더 차별

labor migration, gender discrimination, positive experience, so-called women's area engagement in social movement

(투고일: 2016. 04. 25, 심사일: 2016. 04. 26, 게재확정일: 2016. 05. 16)

<국문초록>

이주와 이주여성의 깨어나기

나혜심

오늘날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이주노동에서 여성노동은 그 숫자에서나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 등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눈에 띄이는 현상이 되었다. 이주의 주체로 여성이 증가하고 그들이 소위 여성의 전업적 영역에서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이주민이 주로 겪게 되는 인종적, 계급적 차별에 더하여 젠더적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차별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 개인들에게로 분석의 시야를 축소하게 되면 이주가 이루어지는 두개 공간 사이의 이동은 이들에게는 비단 부정적 경험만이 아니라 긍정적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주로 자신이 속했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또는 사회적 억압 상황의 해소를 위한 발걸음이 이주물결에서 발견되기도 하며 새로운 사회에서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오랜 동안 갖고 있던 고정된 의식이 깨어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의식의 깨어남은 이들이 이주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부당한 대우를 스스로 타개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식자각은 그래서 이주가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랜 이주의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현재의 이주민성을 설명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